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18
DEC 25 2020

발간년월 2020년 3월 5일 (통권 제11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로즈네프, 미 제재로 유럽 석유사업 난항
- 러시아, 2035년 북극지역 개발전략 추진
- 러시아 관세청·머스크, 블록체인 시범프로젝트 시행
- 상트 페테르부르크 북극 위원회, 북극항로 활성화
- 러, 자루비노 항만에서 일본으로 곡물 수출
- 코로나-19, 러시아의 對중국 수출에 영향
- 카자흐스탄, 오염사고로 석유 수출량 감축
- 우즈베크·카자흐, 양국 경제협력 로드맵 구상

주요 통계

- 2019년 11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로즈네프, 미국 제재로 유럽 석유사업 난항

■ 올 2월 미국 정부는 로즈네프의 스위스 자회사인 ‘로즈네프 트레이딩(RTSA)’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음^{a)}

- 이는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로즈네프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미국은 로즈네프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 이전(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회피해 왔다고 비난했음
- 미국 정부는 ‘로즈네프 트레이딩’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게 90일 동안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음
- 한편, 로즈네프는 ‘로즈네프 트레이딩’의 활동이 합법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쉘브론(Chevron) 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놓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의 제재로 ‘로즈네프 트레이딩’이 베네수엘라 산 석유 운송을 중단할 경우, 로즈네프의 유럽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a)}

- 로즈네프의 고객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로즈네프 트레이딩’을 공급업체에서 즉시 제외하도록 로즈네프에 요구하고 있음
- 로즈네프의 한 주요 거래업체는 “이러한 요구의 목적은 공급루트를 변경함으로써 ‘로즈네프 트레이딩’과의 관련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거래업체는 “2월 18일부터 ‘로즈네프 트레이딩’과 새로운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 같은 업체의 대응이 우려되는 이유는 ‘로즈네프 트레이딩’이 유럽의 석유 메이저인 ‘BP’, ‘로열 더치/셸’과 미국의 석유 메이저인 엑손모빌(ExxonMobil)과 글렌코어(Glencore), 비톨(Vitol)과 트라피구라(Trafigura)와 같은 세계 유수의 업체에 석유와 관련 제품을 제공해 왔기 때문임
-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원 입찰문서에 포함되었던 ‘로즈네프 트레이딩’이 재발행 입찰

(re-issued tender)에서는 빠져있다는 보도했음

- 로즈네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로즈네프 트레이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 은행 대출기관과 화주와의 새로운 거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한편, Mercantile & Maritime사는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로즈네프를 통한 베네수엘라 석유 운송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음^{b)}

- Mercantile & Maritime사는 9척의 유조선대를 보유한 로즈네프 트레이딩의 최대 화주 중 하나이며, 3월 2일 언론을 통해 이번 조치가 90일 내에 로즈네프 트레이딩과의 거래를 종료하라는 미국 제재에 따른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김민수 부연구위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guan72@kmi.re.kr/051-797-4787)

참고자료

- a) <https://world.einnews.com/article/510292173?lcf=ZuK7d0ymNJpL4MgL-c43g6gXjQtoir0teuK6tO5Xv3g%3D&pg=3> (2020.3.3.검색)
- b) <https://www.nasdaq.com/articles/tanker-owner-says-to-end-shipping-of-rosnefts-venezuelan-oil-2020-03-02> (2020.3.3.검색)

러시아, 2035년 북극지역 개발 전략 추진

■ 러시아 정부는 1월 30일 ‘2035년 북극전략’을 승인했음^{a)}

- 이 전략은 러시아 재정부, 에너지부, 극동북극개발부가 함께 수립한 것으로 북극지역 개발을 통해 러시아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임
- 주요 전략 추진 지역은 무르만스크 오블라스트, 추코트카, 야말-네네츠 자치구 및 아르한겔스크, 사하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카렐리아 공화국, 코미 공화국 등임
- 이를 위해 러시아 대륙붕에 위치한 석유가스 자원을 개발할 경우 향후 15년 동안 석유는 5%, 천연가스는 1%로 주외(州外) 소비세(severence tax)^{a)}가 감면되고, 육상 LNG 생산의 경우는 향후 12년 동안 영세율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이 전략의 주요 목적은 북극 지역의 균형 발전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있음^{a)}

- 알렉산더 코즐로프(Alexander Kozlov)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교육, 보건, 고용, 웰빙 등 인간 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북극지역이 러시아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음
- 실제로 북극이 러시아 GDP의 약 10%, 해외직접투자의 10%를 차지하지만 러시아 총인구의 1.5% 미만은 인구 분포가 낮은 지역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지역 인구는 약 300만 명 감소했음
- 무르만스크 주 제조기업 연합 의장인 세르게이 벨러(Sergey Veller)는 북극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35 북극개발전략’은 21개의 대형 지역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할 계획이며, 네네츠 자치주에서의 인디가(Indiga) 항만 개발, 아르한겔스크에서의 목재생산단지, 크라스노야르스크와 무르만스크에서의 금속광물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이 개발계획을 통해 지역 내 20만 명 고용창출과 젊은 인력의 북극 지역 진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북극지역 개발에 있어 북극항로 대규모 투자, LNG 개발이 2대 목표임^{a)}

- 향후 15년 내에 러시아는 야말 LNG, ‘Arctic LNG-2’ 사업을 통해 전 세계 LNG 시장을 주

a) 석유나 가스 등 천연 자원을 생산한 주가 다른 주로 주에 팔 때 부과하는 세금

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또한 북극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주요 운송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북극항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표 1. 야말 LNG와 'Arctic LNG-2 사업 요약

항목	Arctic LNG-2	야말 LNG
발주사	노바텍(Novatek)	노바텍(Novatek)
위치	북서부 시베리아 기단반도 내	야말반도 북동지역
가스 공급원	Salmanovskoye	South Tambeyevskoye
최종 투자결정	2019년 승인(예정)	2013년 말
생산가동	2022~2025년(예정)	2017년
생산능력	연간 약 1,980만 톤 (약 660만 톤의 트레인 3개) 첫번째 트레인 가동 2022년 말로 계획	연간 1,650만 톤 (550만 톤의 트레인 3개) 현재 4번째 트레인 계획 중
총 건설 투자비용	100억 달러	270억 달러
LNG 계약	일부 현물거래	96% 계약 완료
손익분기점	야말 LNG 프로젝트의 1단계와 유사한 1,000m³당 250달러 이하로 추정	1,000m³당 250달러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민수 부연구위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guan72@kmi.re.kr/051-797-4787)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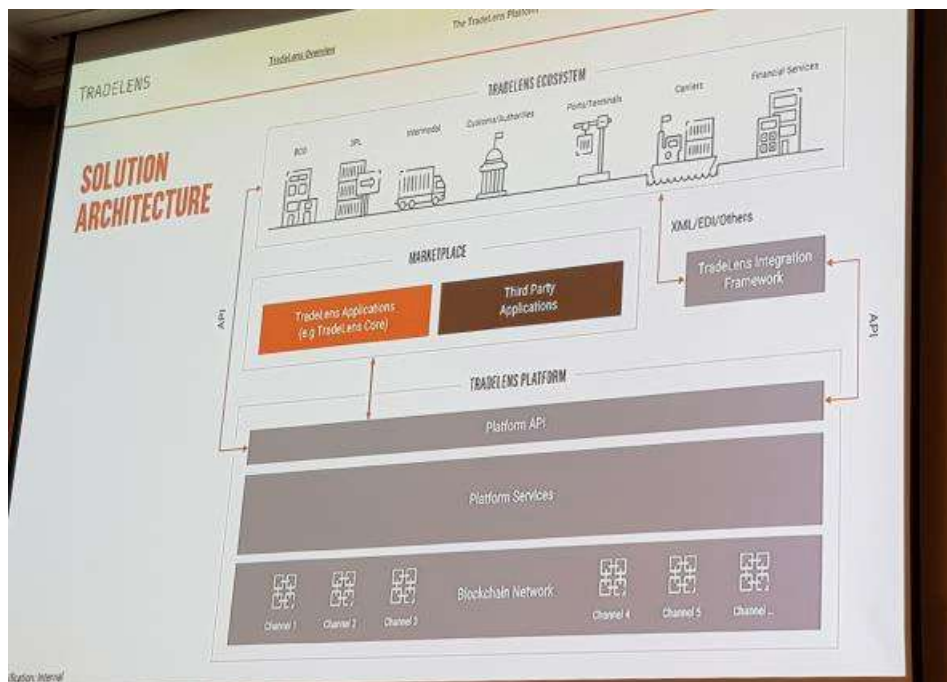
- a) <https://jamestown.org/program/russia-prepares-ambitious-economic-strategy-for-arctic-region/> (2020.3.3. 검색)

러시아 관세청·머스크,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 시행

■ 러시아 관세청과 해운회사 머스크는 유럽~아시아 구간에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을 적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시범 사업 구간은 유럽~아시아 구간은 보스토치니 항(연해주)에서 TSR을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까지이며, 우리나라, 일본 및 북유럽 항만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임
- 해당 노선은 올해 1월부터 매달 1회 정기 운행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매달 두 번으로 증편될 계획임
- 블록체인을 활용한 물류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TradeLens)' 시범 프로젝트 1단계는 3월 1일 시작되었으며, 6월 마무리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아시아 구간의 화물운송시간은 42~45일에서 18~20일로 절반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트레이드렌즈 구조



■ 지난해 6월 IBM과 머스크는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을 러시아 정부에 제공함

- 지난해 6월 IBM과 머스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러시아 정부에 제공했으며, 태국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청 등 각국 관

세척,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GCT) 및 글로벌 해운회사인 MSC, CMA-CGM 등은 물론 우리나라 해운기업인 고려해운과 남성해운 또한 이 플랫폼 사업에 합류하고 있음

- 트레이드렌즈를 통해 화주, 항만당국, 관리기관 등 상호작용이 필요한 관계자간 정보교환 과정을 최적화하고, 국경 간 화물 통관 및 운송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김엄지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참고자료

- a)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maersk_nachal_eksperimentirovat_s_blokcheynom-pod_prismotrom_fts_rossii.html(검색일: 2020년 3월 5일)
- b) <http://portnews.ru/news/292296/>(검색일: 2020년 3월 5일)
- c) <https://www.coindeskkorea.com/news/userArticlePhoto.html>(검색일: 2020년 3월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북극 위원회, 북극항로 활성화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북극위원회, 로스아톰(Rosatom), 아톰플롯(Atomflot)은 북극항로의 이점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그림 2. 상트페테르부르크 라운드테이블 현장



- 이날 회의에서 안드라닉 코차랴(Andranik Kocharyan) 아톰플롯의 재무팀장은 북극항로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극동지역 운송노선이 개발되면 무역량 증가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운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발표함
- 에두아르트 바타노프(Eduard Batanov)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주지사는 북극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는 물류, 조선, 중공업 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이 행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북극위원회와 북극전문가센터인 북극개발사업소(Project Off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PORA)는 정보공유 및 행정지원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
-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지난해 원자력 래쉬언 형태의 컨테이너선 ‘세베르푸트(Severput)’를 투입하여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항만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까지 시험 운항을 마쳤으며, 앞으로 이 운항성과를 검토하여 정기 컨테이너 정기운송 루트를 개발할 계획임

참고자료

- a) <https://spbdnevnik.ru/news/2020-02-26/v-peterburge-obsudili-razvitie-severnogo-morskogo-puti-do-arktiki/>(검색일: 2020년 3월 5일)
- b) <https://topspb.tv/news/2020/02/26/v-peterburge-obsudili-logisticheskie-preimushstva-severnogo-morskogo-puti/>(검색일: 2020년 3월 5일)

러, 자루비노 항만에서 일본으로 곡물 수출

■ 2만 7천 톤 규모의 옥수수를 자루비노 항만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임

- 연해주 영농기업인 ‘레겐다그로(Legendagro)’는 극동 러시아 자루비노 항만에 있는 하역 회사 ‘트로이차 만의 모르스코이 포트(Morskoy port in Troitsa)’을 통해 자체 생산한 곡물을 일본으로 수출할 예정임
- 레겐다그로(Legendagro)의 지분은 중국의 Legend Holdings, Beidahuang Group и Jiusan Oils & Grains Industries Group가 소유하고 있으며, 연해주 지역에 위치한 영농 기업임
- ‘트로이차 만의 모르스코이 포트(Morskoy port in Troitsa)’는 극동 러시아 자루비노 항만에 있는 유일한 하역회사임
- 레겐다그로는 올해 말까지 자루비노 항만을 통해 중국, 일본, 우리나라로 4만 톤 규모의 곡물을 수출한다는 목표임
- 레겐다그로는 농작물 생산 외에도 자체 물류회사를 설립하고 연해주 항만에 해마다 최대 40만 톤 규모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임

김엄지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참고자료

- a) <https://www.rzd-partner.ru/wate-transport/news/cherez-primorskiy-port-zarubino-organ-izovan-eksport-zernovoykh-gruzov-v-yaponiyu/>(검색일: 2020년 3월 5일)

코로나-19, 러시아의 對중국 수출에 영향

■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크게 감소^{a)}

-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량은 중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6주 동안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러시아 극동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1월 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62만 톤, 2월 첫 열흘 간 11만 8,000톤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음
-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는 품목은 광물, 목재 그리고 기타 원자재 순으로 나타났음

■ 중국 경제의 둔화는 러시아 무역에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

- UN에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양국 간 무역 총액이 약 1,10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었음
- 러시아는 서방경제제재 이후 푸틴 대통령이 경제의 초점을 동쪽으로 잡으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장기 폐쇄에 취약하고, 경제 성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모스크바 노르디아(Nordea) 은행의 타티아나 에브도키모바(Tatiana Evdokimova)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둔화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중단된 러시아의 물류 체인과 생산 라인은 다음 분기에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임
- 양국은 2,615 마일의 국경을 공유하면서 화물운송은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러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카마즈(Kamaz)의 대변인에 따르면, 기존 중국으로부터 부품의 10분의 1을 공급받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인도, 벨라루스, 그리고 현지 업체에 일부를 재분배했다고 밝혔음
- 중국에서는 2019년에 150만 명이 러시아에 방문했는데, 올해 2월 20일부터 중국 여행객에 대한 일시적 금지령이 내려 러시아 관광수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표 2. 2018년 러시아 수·출입 상위 10개 교역국^{b)}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중국	56,019	중국	52,217
네덜란드	43,450	독일	25,510
독일	34,184	벨라루스	12,906
벨라루스	22,779	미국	12,690
터키	21,312	이탈리아	10,580
대한민국	17,824	프랑스	9,561
폴란드	16,607	일본	8,821
이탈리아	16,400	대한민국	7,009
카자흐스탄	12,923	우크라이나	5,463
미국	12,569	카자흐스탄	5,295

자료: <https://globaledge.msu.edu/countries/russia/tradestats>

전준혁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인턴

(jeonjh0211@kmi.re.kr/051-797-4941)

참고자료

a)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02/19/coronavirus-hits-russian-exports-to-china-a69355> (2020.3.3. 검색)

b) <https://globaledge.msu.edu/countries/russia/tradestats> (2020.3.4. 검색)

카자흐스탄, 오염사고로 석유 수출량 감축

■ 카자흐스탄 정유업체의 석유 오염사고로 중국 원유 수출물량 감축^{a)}

-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소재의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자회사인 Aktobemunaygas가 생산한 원유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기염소화합물이 검출됨
- 원유에서 유기염소화합물이 다량 검출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송유관을 통해 중국에 수출할 원유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은 중단한 상태임

■ 카자흐스탄은 3월 러시아 발트해를 통한 석유 수출 계획을 4분의 3으로 축소^{b)}

-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석유 오염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러시아 우스트루가(Ust-Luga)를 통한 석유 수출도 축소하기로 했음
- 카자흐스탄은 3월에 우스트루가 발트해 항구를 통해 80만 톤의 석유를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60만 톤으로 축소되었음

그림 3.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 국가 분포도^{c)}



■ 카자흐스탄, 자국 내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출 물량 보류

- 카자흐스탄은 하루에 약 16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원유 오염이 발생한 Aktobemunaygas가 생산하는 원유의 비율은 5% 미만이고, 대부분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사용됨
- 당초 카자흐스탄은 내부 시장의 공급을 유지하고, 원유 제품 부족을 피하기 위해 수출을 위한 일부 물량을 보류한 상태

참고자료

- a) <https://www.reuters.com/article/kazakhstan-oil-contamination/kazakhstan-cuts-oil-export-to-china-after-contamination-detected-trade-idUSL8N29Q5NS> (2020.3.3. 검색)
- b)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kazakhstan-cuts-oil-export-plan-from-russias-usage-in-march-traders/> (2020.3.3. 검색)
- c) https://oec.world/en/visualize/tree_map/hs92/export/kaz/show/2709/2017/ (2020.3.3. 검색)

우즈벡-카자흐, 양국 경제협력 로드맵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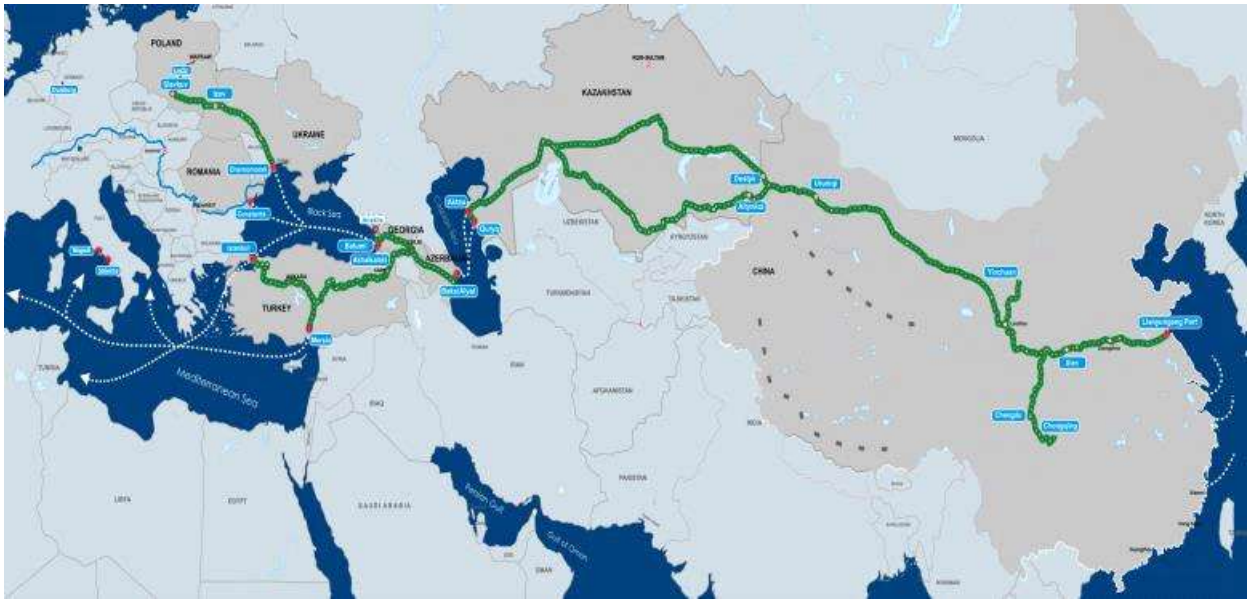
■ 2월 25일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카자흐 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벡 대통령과 경제협력 회담을 가졌음

- 우즈벡-카자흐 양국 대표단은 향후 분야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의 밀도 있는 경제 파트너십 아젠다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합의하였음. 분야별 협력 내용은 무역, 투자, 수력 에너지, 교통물류, 건설, 농업, 섬유공업, 자동차공업, 관광, 환경 등을 총망라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근 우즈벡-카자흐 양국 간 공동사업 계획의 양과 질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 교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마민 총리는 이에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천명한 카심-조마르트 토크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며 화답하였음. 또한 마민 총리는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우르겐치(Urganch)에서 개최된 300명 이상 규모의 양국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하였음. 이 포럼에서 40개 이상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됨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서로를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2019년 양국 교역량은 41억 달러(한화 약 4조 8,67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말에는 50억 달러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3,000개 이상의 양국 합작 사업체들이 영업 중임

■ 마민 총리는 포럼에서 우즈벡 측에 물류 협력 방안 및 트랜스 카스피안 물류 루트 참여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음

- 마민 총리는 카자흐-우즈벡 경제협력 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트랜스 카스피안 국제 물류 운송루트(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참여를 제안했음
- 마민 총리는 우즈벡 물류운송 기업들이 국제 운송루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카자흐 측은 우즈벡 측에 이익이 되게끔 화물운송 요율을 적용할 것이며, 우즈벡 측은 운송루트 가맹국의 양질의 철도망과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아울러 운송루트 참여는 우즈벡 농업인들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덧붙였다
- 트랜스 카스피안 물류 루트(별칭 Middle Corridor)는 2016년 1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가 경쟁력 있는 물류운송 요율 책정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중국, 터키, 그리고 해상운송루트와 병행하여 유럽 국가들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그림 4. 트랜스 카스피안 국제운송 루트(녹색)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https://ru.sputniknews.kz/economy/20200226/12940595/mamin-uzbekskie-kompanii-predl-ozhenie.html> (2020. 3. 1. 검색)
- <https://ru.sputniknews.kz/economy/20200225/12934083/kazakhstan-uzbekistan-dorozhnay-a-karta.html> (2020. 3. 1. 검색)
- <https://middlecorridor.com/ru> (2020. 3. 3. 검색)



주요 통계



표 1. 2019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 해역	10.2 (-1.1%)	6.2 (-0.8%)	16.4	-1.1%
북극해	2.8 (-0.4%)	5.9 (-1.4%)	14.7	-1.1%
발트해	8.8 (-1.0%)	11.2 (-0.6%)	20.0	-0.1%
아조프-흑해	6.9 (+0.1%)	12.7 (+0.2%)	19.6	+0.2%
카스피해	0.2 (-3.7%)	0.4 (-10.0%)	0.6	0.0%
합계	28.8 (-0.5%)	36.4 (-0.5%)	65.2	-0.5%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portnews.ru/news/288413/> (검색일: 2020. 2. 20)

표 2.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34,007.2	96,398.2	332,095.5	94,937.7	1,911.8	1,460.5
광물 제품	1,076,942.7	77,727.7	1,047,074.2	7,659.1	29,868.6	70,068.5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80,650.9	6,521.0	980,660.3	6,518.2	0,0	2.8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948.0	65,999.6	4,146.4	65,449.5	801.6	550.1
가죽원료, 모피 제품	4.3	1,996.7	3.9	1,976.9	0.4	19.8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4,515.8	8,035.2	93,897.7	7,866.8	618.1	168.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89.9	16,198.3	177.0	15,447.5	12.9	750.7
금속 및 금속 제품	24,685.1	61,525.2	24,604.0	60,195.0	81.1	1,330.2
기계류	25,569.3	397,905.3	25,025.5	396,054.1	543.8	1,851.2
기타	299,120.4	36,747.3	229,688.3	36,371.1	69,432.0	376.2
합계	1,859,982.6	762,533.4	1,756,712.3	685,957.7	103,270.3	76,575.8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검색일: 2020. 2.20)

표 3.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 생물	2	352.3	0	0	2	352.3	0	0	-	-	-	-
냉동어	72,542	1,929,847.9	583	47,563.8	72,542	1,929,847.9	583	47,563.8	0	0	-	-
연어류	12,387	322,964.7	-	-	12,387	322,964.7	-	-	0	0	-	-
넙치	723	29,457.4	-	-	723	29,457.4	-	-	-	-	-	-
가자미	1,332	14,774.3	-	-	1,332	14,774.3	-	-	-	-	-	-
가자미류	2,023	33,411.3	-	-	2,023	33,411.3	-	-	-	-	-	-
청어	16,164	86,939.7	-	-	16,164	86,939.7	-	-	0	0	-	-
대구	7,545	188,839.8	-	-	7,545	188,839.8	-	-	-	-	-	-
명태	23,728	896,113.1	-	-	23,728	896,113.1	-	-	-	-	-	-
농어	13	1,966.2	-	-	13	1,966.2	-	-	-	-	-	-
간, 곤이 (어란)	2,432	253,085.9	-	-	2,432	253,085.9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1,086	15,416.9	-	-	1,086	15,416.9	-	-	-	-	-	-
생선 필렛, 어육	542	153,137.7	238	4,006.8	542	153,137.7	238	4,006.8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4	1,497.1	79	5,314.0	114	1,497.1	79	5,314.0	-	-	-	-

갑각류	6,209	996,839.2	76	2,479.5	6,209	996,839.2	76	2,479.5	-	-	-	-
계류	5,278	909,332.3	-	-	5,278	909,332.3	-	-	-	-	-	-
조개류	6,979	109,743.5	-	-	6,979	109,743.5	-	-	-	-	-	-
가리비류	186	12,068.5	-	-	186	12,068.5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6,695	66,827.3	64	2,778.7	6,695	66,827.3	64	2,778.7	-	-	-	-
수산 무척추 동물	873	31,141.7	-	-	873	31,141.7	-	-	0	0	-	-
해삼류	247	6,785.6	-	-	247	6,785.6	-	-	0	0	-	-
성게류	626	23,814.4	-	-	626	23,814.4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20.2.20)